

‘디자인+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광주시, 아파트 차별화 나선다

도시계획 전문가 등 자문위 구성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방안’ 마련
‘광주형 임대주택 모델’도 개발

광주광역시가 광주 만의 차별화된 주거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역 아파트는 건설·공급 경제성, 생활 편의성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광주 만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배제된 획일성, 도시 외곽 장벽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을 지양하고 아파트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자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건축,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건

축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 디자인+안전 향상 모델’을 개발한다. 자문위원회는 건물배치, 외벽디자인, 발코니 형태, 특화된 부대시설 등에 ‘디자인’과 ‘안전’을 접목시킨 개념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공동주택 심의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주 만의 차별화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시행한다.

광주시는 LH, 광주도시공사와 T/F팀을 구성해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을 위한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모델 ‘광주형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 정부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과거에는 아파트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광주를 더욱 광주답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광주다운 주거문화’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오종일 기자 raser506@metroseoul.co.kr

평택시-미2사단, 韓美 협력강화 논의

정장선 시장-맥킨 사단장 간담회
“美장병의 한국 적응에 노력할 것”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7일 대외협력실에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맥킨 사단장과 한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9일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평택시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맥킨 사단장님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며, 평택시장으로 취임한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평택시와 미2사단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맥킨 사단장은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리며 시장님의 당선은 평택시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네는 한편, “평택시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며, 미2사단 장병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미군 장병들이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한국인들과 잘 지낼 것이라 믿는다”며, “평택이라는 낯선 곳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군장병과 가족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평택시의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의 “미 2사단 본부를 한번



7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한미연합사단 맥킨 사단장이 대외협력실에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감담회를 가졌다.

/평택시

방문하고 싶다”라는 제안에, 맥킨 사단장은 “미국에서 30여년 동안 알고 지난 한국인 친구가 워싱턴 D.C.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한다”는 한국과의 인연에 대한 언급과 함께 “시장님 방문을 언제든 환영하며 다음 달에 있을 미2사단 101주년 행사에 꼭 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초청의사를 밝혔다.

이 날 함께 한 맥카리 행정 부사단장은 “자녀들이 평택 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등 평택생활을 즐기고 있다”며 평택에서 추진 중인 주한미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만족스러워 했고, 한편 행정 부사단장인 김용철 준장은 “평택기지 이전사업 시작 초기에 국회의원으로써 사업 기반을 닦아놓으셨는데 이

렇게 시장님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국회의원으로써 평택 기지 이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렸다면, 지금은 시장으로써 미군 장병 및 가족들과 평택시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본인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관계를 위해 시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념품 전달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며 다기세트를 선물했고, 맥킨 사단장은 답례로 “한국전에 참전한 삼촌의 부대 상징이 토마호크 도끼였다.”며 의미가 담긴 토마호크 도끼를 선물했다.

/평택=이보현 기자 phlee7777@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최우수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농립식품부가 주최한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평가를 이뤘다.

전국 141개 시군의 443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임대농기계 보유율과 임대실적, 운영사항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현장 방문 면접조사, 농업인 만족도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다.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군에 선정됐으며, 최우수 시·군에게 주어지는 상 사업비 3억 원을

노후농기계 교체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경영비를 절약할 수 있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 기종을 파악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및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무안·일로·해제·운남 4개소에 임대농기계 60종 763대를 비치하여 활발하게 운영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이 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최우수군’ 선정.
/무안군

년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운송 차량이 없는 영 세농가를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를 작년부터 무안본소에 한해 시범 운영한 결과 군민들의 이용실적과 반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일로, 운남, 해제분소 3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양수녕 기자 ysn6313@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린 8일 오전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경찰이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퀴어축제’ 진행방해 8명 불구속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 소수자 단체의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A(2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혐의별로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5명, 공무집행 방해 2명, 교통 방해 1명이다. 이들은 8일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퀴어축제 주최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퀴어문화축제는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LGBT) 등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다.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지만, 일부 단체가 성 소수자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행사 개최에 반발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위해 동인천역 북광장을 사용하겠다며 승인 신청서를 인천시 동구에 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다. 동구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면 안전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이 필요하다며 이를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행사에 따른 안전요원과 주차장 마련 기준은 어떤 조례에도 없고 광장 사용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동구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시는 10월께 행정 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인천시 ‘메르스’ 비상 대응체계 가동

쿠웨이트서 입국한 남성 확진

24시간 비상 방역대책반 설치

며, 위기경보 상황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천시 밀접 접촉자는 1명으로 해당 보건소에서 자택 격리조치 중이며 증상은 없는 상황이나, 증상이 있을 시 즉시 국가정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메르스 감염되지 않도록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체 및 마스크 착용, 손으로 눈코입 접촉 삼가는 등 개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며 “중동 지역을 다녀온 후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i@

명절 범죄예방 ‘추석 종합치안대책’ 추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치안감 김기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활동과 교통관리에 중점을 둔 ‘추석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계별로 나눠 추진되는 이번 치안대책은 추석 연휴 시작 전인 10일~19일을 1단계로 분류해, 이 기간에는 범죄 발생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범죄취약요인 정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역주민이 요청한 구역을 중심으로 탄력순찰을 확행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추석 종합치안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도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고성철 기자 ksc@